

‘反-코기토’의 태동으로서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

장정아*

〈차 례〉

1. 들어가는 말 : 선행연구 분석과 문제제기
2. ‘에로디아드’로 읽는 『악의 꽃』의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와 反-코기토
3. 나가는 말 : 反-코기토의 태동으로서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국문초록】

본고는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가 보여주는 反-데카르트 코기토적인 세계를 그들의 시 속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 중심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이는 프랑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데카르트 코기토와 비교하여, 反-[데카르트] 코기토적 사유를 보여주는 프랑스 상징주가 니체, 프로이트, 맑스와 함께 탈근대적 사유의 또 다른 선구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 선행연구에 이어지는 연구이다. 불모(不毛)의 여인은 외부의 접근을 불허한 채 절대적 고립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죽음을 통한 자기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자아의 경계를 확장 및 무화해가는 여정을 드러냄

*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으로써, 명명되지 않은 잠재성까지 자신과 세계의 가능성으로 포괄, ‘관계’를 존재와 세계의 가능태, 그 확장의 동인으로 재정립하는 反-코기토적인 사유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본고는 말라르메의 시 속 등장인물 ‘에로디아드’와 비교하여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나타난 불모(不毛)의 여인을 읽음으로써 이를 드러낸다. 이는 『악의 꽃』에 나타나는 여인 이미지의 불모성(不毛性) 읽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고, 反-코기토적 사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선구적 입지에 있는 프랑스 상징주의를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보들레르, 불모(不毛)의 여인, 말라르메, 에로디아드, 反-코기토

1. 들어가는 말 : 선행연구 분석과 문제제기

어느 때보다 ‘관계’에 무게가 실리는 시대이다. ‘나’의 실존이 ‘너’에 의해, 나와 너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가 아니라, 나-너의 ‘관계’ 속에서 그 운명이 결정되고 생성되는 ‘나’가 목도되는 시대, 이른바 서구의 反-코기토적 사유를 삶 속에서 감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사유를 본성으로 하는 실체로서의 근대적 주체를 정초한 데카르트 코기토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심 및 주체 개념을 동시에 재해석함으로써, ‘실체’에 찍혀있던 방점을 ‘관계’로 이동시키며, ‘관계’를 존재와 세계의 가능태, 그 확장의 동인으로 재정립하는 反-[데카르트] 코기토적 사유에 대한 고찰은 이제 우리 삶의 조건과 직결되게 된 것이다.¹⁾ 이에 니체, 프로이트, 맑스를 선구로 하는 反-코기토적인 탈근대적 사유에 있어서, 그 또 하나의 진원

지로서 프랑스 상징주의를 드러낸 선행연구(각주1 참조)에 이어, 본고는 그러한 프랑스 상징주의를 각각 열고 완성한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세계 속에서 反-코기토적 사유를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Les Fleurs du Mal*)에 나타난 여인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는 상당하다.²⁾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본고가 주목하는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사르트르와 바타이유의 연구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사르트르는 『악

1) 줄고, 「코기토에서 反-코기토로 : ‘反-코기토’로 읽는 ‘관계’의 새 지평-프랑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화연구』 제59집, 2023, pp. 197-198 · 209-212 · 219-221 참조(부분 인용). 본고의 ‘反-코기토적 · 탈근대적 사유’에 대한 가치부여는 이 선행연구에서 전개한 내용에 준함을 밝힌다. 간략히 인용하면, 주체와 객체, 중심과 주변의 이원론을 낳았던 데카르트 코기토, 그것에 反하는 ‘反-코기토’의 사유체계는 더 이상 고정된 장소도 실체도 아니게 된 중심을 “자기 안에 무한한 대체의 유희가 일어나는 일종의 비장소”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사건”(Jacques Derrida,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Seuil, 1967, p. 411. 자크 데리다, 남수인 옮김, 『글쓰기와 차이』, 동문선, 2007, p. 441)으로서 드러내고, 그렇게 인간 존재는 세계를 표상하는 중심의 자리를 내놓으며, 명명되지 않은 잠재성까지도 자신과 세계의 가능성으로 포괄하게 되어, ‘관계’는 세계와 ‘나’의 경계 확장을 가져오는 삶의 양태, 하나의 실천이 되고, 프랑스 상징주의는 그 또 하나의 진원지로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2) 보들레르의 세계에서 여성 이미지에 주목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 「보들레르와 女子 (1)-연구의 현황」(김창수,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화연구』 제22집, 2011, pp. 157-203)은 1966년부터 발표된 국내의 관련 기사 및 논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 이후에도 「보들레르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흑인 여성상」(조현진,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4집, 2016), 「보들레르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어머니」(조현진,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58집 제1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댄디즘의 정신적 귀족주의에 나타난 여성혐오 연구」(조은라, 유럽문화예술학회, 『유럽문화예술학논집』 제10권 제1호, 유럽문화예술학회, 2019) 등의 국내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反-코기토’의 관점에서 『악의 꽃』의 여인 이미지를 읽은 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 꽃』에서 “냉혹함의 제식”(culte de la frigidité)³⁾을 주목한다. 보들레르의 시 세계에서 광물이 나타내는 불모(不毛)의 단단함은 보들레르가 전 생애 동안 추구했던 비풍요성(infécondité)과 관련되어, 보들레르의 시 세계는 냉기에 의한 고갈/불모화(stérilisation par le froid)인 냉혹함(frigidité)에 대한 숭배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 순수한 만큼 무용하며 불모(不毛)인 냉담함과 냉엄함(le froid, le froideur)은 무엇보다도 시인 자신의 특징이고, 그러한 냉혹함을 구현하는 대상은 보들레르의 세계에서 특정 범주의 여인들뿐이며, 그러한 냉혹함과 냉담함을 구현하는 시 속의 여인들은 순수한 만큼 침투할 수 없는 절대적 타인으로서, 금지된 것을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때 그러한 여인 앞의 시적 화자는 욕망의 고독,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욕망 저 혼자만의 거주를 실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욕망 자체의 불모성이 구현되며, 그 완전한 실현 형태는 죽음과 주검에 있다는 것이다.⁴⁾

보들레르의 시에 있어서 “불모의 여인의 냉담한 존엄성”(la froide majesté de la femme stérile, XXVII. Avec ses vêtements ondoyants et nacrés..., v.14, *Les Fleurs du Mal*)⁵⁾과 관련된 이미지 즉, 불모성, 불모의 여인, 욕망 자체의 불모성, 그 절정으로서의 죽음 및 주검 이미지는 이처럼 간과할 수 없는 시적 대상임이 분명하고, 프리드리히 후고 또한 이것을 “비어있는 이상성”(l'idéalité

3) Jean Paul Sartre, *Baudelaire*, collection idées, nrf, Gallimard, 1947, p. 147.

4) Ibid., pp. 135-167 참조. 사르트르, 박익재 역, 『시인의 운명과 선택 -보들레르: 인간과 시』, 문학과지성사, 1985, pp. 116-143 참조.

5) 본고의 『악의 꽃』 원문은 Charles Baudelaire, *Oeuvres Complètes*, Éditions du Seuil, 1968 및 Charles Baudelaire, *Les Fleurs du Mal*,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9에서 인용함을 밝힌다. 인용 방법은 여기서와 같이 이후도 출처 페이지는 생략하고, -시 작품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와 함께- 시의 제목과 행 또는 연 구분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시 작품 해석은 다음 번역서를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보들레르, 윤영애 옮김, 『악의 꽃』, 문학과지성사, 2003.

vide)⁶⁾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런데 바타이유가 보들레르에 대한 사르트르의 글에서 우선 주목하는 것은 “자유”이다. 바타이유에 따르면 사르트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선이라는 개념에 혹은 기성의 질서에 기댈 수 없는 가능태로 존재하는 이 상태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⁷⁾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감수성이 팽배하는” 보들레르의 시는 “희박하면서도 사람의 진을 빼는 불모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자리하고, 그러한 시적 이미지는 “무한하고 열려진 삶, 충족되지 못한 삶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타이유가 보기에 자유는 “신이 갖지 못한, 혹은 말로만 가지고 있는 권력”이자 “어린이가 지닌 힘”이고, 이는 “완성된 인간[...]으로서 행동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한 보들레르”, “어린이처럼” “오류를 선택한” “보들레르”와 연결되며, 그것은 “시의 선택”이자 “인간의”, 즉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대립하고 있”는 인간의, “처형의 대상이 되지 않고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으며 끝까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선택”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보들레르의 시 세계는 사르트르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고 요약한다. “반투명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시적인 통찰이 갖는 거리”가 존재하는 세계 말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과 세계의 정체를 재발견하기를 희망하는 시”로 연결되고, 그때 “죽음은 불가능의 끝까지 가기를 원한 보들레르의 의지에 부응했던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⁸⁾

이렇게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보들레르 시 세계 속 불모의 이미지를 『악의 꽃』의 여인 이미지 중심으로 읽으면서 反-코기토적

6) Hugo Friedrich, *Structure de la poésie moderne*, Livre de Poch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9, p. 64.

7) Georges Bataille, *La littérature et le mal*, Folio essais, Gallimard, 1957, p. 28. 조르쥬 바타이유, 최윤정 옮김, 『문학과 악』, 민음사, 1995, p. 39.

8) Georges Bataille, *La littérature et le mal*, op. cit., pp. 29-37 참조. 조르쥬 바타이유, 『문학과 악』, 앞의 책, pp. 41-53 참조.

사유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고는 말라르메의 시 속 등장인물 에로디아드(Hérodiade)의 불모성과 비교하면서 진행된다. 즉, 본고는 우선 말라르메의 시 속 등장인물 에로디아드가 소위 절대라고 하는 어떤 불이(不二)의 양태를 구현하고, 그 대표적인 특성이 불모(不毛)의 여성이라는 데 주목한다.⁹⁾ 1871년 『현대 파르나스』(*Parnasse contemporain*) 2집을 통해 발표된 말라르메의 장시 「에로디아드」(Hérodiade)는 말라르메가 한평생 작업을 한 작품이고,¹⁰⁾ 그 완성된 원고의 제목 「에로디아드의 결혼」(*Les Noces d'Hérodiade*)만이 말라르메의 서한집 마지막에 남겨진 채,¹¹⁾ 결국 미완으로 남는다. 이러한 「에로디아드」 혹은 「에로디아드의 결혼」은 순결한 상태의 “에로디아드”가 자기 죽음, 물론 정신적인 자기 죽음과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말라르메의 시적 여정 전체를 요약한다. 말라르메의 “작품”은 개별적 자아의 정신적 죽음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어떠한 “순수 개념”에 이르기까지의 이미지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시인은 20대 후반에 밝히고 있고,¹²⁾ “에로디아드”라는 등장인물, 그 여성 이미지의 -“결혼”에 이르는- 변화는, 결혼 상대인 성 요한의 참수된 머리가 에로디아드 자신의 정신적 죽음을 나타냄으로서, 그 자체로 말라르메의 “작품”에 비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로디아드는 그렇게 순결한 자기 자신 속에 침잠한 채,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

9) 말라르메의 여성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최윤경, 「말라르메에 나타난 여성성의 근대적 의의-「에로디아드 Hérodiade」를 중심으로-」,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불문학회연구』 제54집, 2003, Choe, Seok, *Reve feminin ou le feminin chez mallarme*, Université Paul Valéry - Montpellier III, 1986 등이 있다.

10) 그 미완의 원고들을 일차적으로 모은 책이 다음 연구서이다 : Stéphane Mallarmé, *Les Noces d'Hérodiade*, publié par Gardner Davies, Gallimard, 1959.

11) Stéphane Mallarmé, *Correspondance*, Gallimard, 1995, p. 643.

12) Ibid., p. 343.

는 모습으로 등장하므로, 그녀에게 불모(不毛)의 이미지는 결정적이고, 그렇게 불모성에서 출발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적- 죽음으로 완성되는 결혼을 통해 타자를 향해 열리는 이미지로 변모, 주객의 실체적 분리를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反-코기토적인 사유를 구현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에로디아드의 불모의 이미지와 함께, 보들레르의 시 속에 나타나는 불모의 여인 이미지를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프랑스 상징주의가 反-코기토적 사유의 또 하나의 선구에 있음을 다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2. ‘에로디아드’로 읽는 『악의 꽃』의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와 反-코기토

“악”을 전면에 표방하며 그것의 “꽃”을 노래하고자 하는 『악의 꽃』에서 “모든 이상화를 거부하는 악의 세계”¹³⁾를 만나는 것은 놀랍지 않으며, 그리하여 보들레르에 의해 토로되는 “여자”가 한편으로는 “여자는 댄디의 반대다. 따라서 여자는 틀림없이 혐오감을 일으킬”¹⁴⁾ 존재로 등장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전면을 지배하는 모순어법의 연장선에 있는 듯 “수컷 머릿속의 모든 개념들을 주재하는 하나의 신성, 하나의 별”¹⁵⁾로 등장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러한 『악의 꽃』 속 여인 이미지가,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와의 비교하에서 反-코기토적 사유의 정점

13) John E. Jackson, *Le Corps amoureux, Essai sur la représentation poétique de l'éros de Chénier à Mallarmé*, À la Baconnière, 1986, p. 89.

14) Charles Baudelaire, *Mon cœur mis à nu, Œuvres complètes*, Éditions du Seuil, 1968, p. 630.

15) Charles Baudelaire,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ibid., p. 561.

을 구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고가 처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속 여인의 특별한 머리카락 이미지이다.

1) “머리카락-투구” 금속성의 방패 이미지와 불모의 여인 그리고 욕망

『악의 꽃』의 다음 시구 “오 곱슬한 머릿결! 오 게으름 가득한 향내여! / 황홀함이어!”(Ô boucles ! Ô parfum chargé de nonchaloir ! / Extase ! XXIII, La chevelure, v.2-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이성 간 도취와 “황홀”의 촉매제로서, 그것에 취해있는 이성에게 비현실적인 이상을 나타나게 하는 형상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다 : “거의 사라져버린 이곳에 없는 아득한 전 세계가 고스란히 / 그대 깊은 곳에 살아 있구나, 향기로운 숲이여!”(Tout un monde lointain, absent, presque défunt, / Vit dans les profondeurs, forêt aromatique ! XXIII, La chevelure, v.7-8). 그런데 이와는 달리 말라르메의 시 속 등장인물 에로디아드의 머리카락은 외부를 차단하는, 아주 특별한 이미지를 구성한다. 〈장면〉에서 읽어보자.

물러서오,
순결한 내 머리카락의 금빛 격류가,
내 고독한 몸을 에워싸며 공포로
얼어붙게 하니,

Reculez.
Le blond torrent de mes cheveux immaculés,
Quand il baigne mon corps solitaire le glace
D'horreur,
〈장면〉 v.3-6, 「에로디아드」¹⁶⁾

16) 본고에서 〈장면〉을 포함한 「에로디아드」 혹은 「에로디아드의 결혼」의 원

에로디아드는 자신을 위해(v.75), 자기 존재의 신비를 지키고 있는(v.74-75) 이로서, “홀로 자라 물속에 비친 무기력한 제 그림자 / 외엔 어떤 감흥도 갖지 않는 슬픈 꽃”(Triste fleur qui croît seule et n'a pas d'autre émoi / Que son ombre dans l'eau vue avec atonie. v.76-77)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거주하는 곳이 “돌과 쇠로 된 육중한 감옥”(la lourde prison de pierres et de fer, v.12)으로 비유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에로디아드의 “몸”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v.5), 그러한 고독은 모든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어 “순결”하다(v.4). 이때, 이러한 에로디아드의 혼자만의 고독과 순결을 지키는 일종의 방패가, “감옥”으로 일컬어진 그녀의 거주 공간 명시 이전에, 에로디아드의 “머리카락들”이라고, 인용된 시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식어 “순결한”(immaculés)은 에로디아드의 고립, 결국 머리카락의 방패 역할을 강조한다. “머리카락들”이 “순결한” 것이므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에로디아드의 고독, 머리카락들의 접근 불가능한 방어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차단용 방패로서의 여인의 머리카락 이미지를 보들레르의 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날 밤, 끔찍하게 생긴 유대 계집 곁에,
시체 곁에 또 하나의 시체 있듯이 나란히 누워,

문은 Stéphane Mallarmé, *OEuvres complètes 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98 및 Stéphane Mallarmé, *Poésies*, Gallimard, 1992에서 인용함을 밝힌다. 이후 출처 페이지는 생략하고 시의 제목과 행 또는 연구분으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미완의 작품인 「에로디아드」 혹은 「에로디아드의 결혼」은, 여러 이본들을 종합할 때, 〈서장 I〉(Prélude I) 〈서장 II〉 〈서장 III〉 〈장면〉(Scène) 〈중장〉(Scène Intermédiaire) 〈중장〉(Finale)으로 구성될 작품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줄고,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Hérodiade) 연구-일원적 존재-언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 173-175 각주 9, 10 참조. 그리고 본고에서 〈장면〉의 해석은 다음 번역서를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 스테판 말라르메, 황현산 옮김, 『시집』, 문학과지성사, 2005.

그 돈에 팔린 몸뚱이 곁에서 나는 생각했다,
내 욕망이 포기한 저 서글픈 미녀를.

나는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녀의 타고난 위엄을,
힘과 우아함을 갖춘 그녀 시선을,
그녀 머리카락은 향내 나는 투구,
생각만 해도 사랑이 내게 되살아난다.
Une nuit que j'étais près d'une affreuse Juive,
Comme au long d'un cadavre un cadavre étendu,
Je me pris à songer près de ce corps vendu
À la triste beauté dont mon désir se prive.

Je me représentai sa majesté native,
Son regard de vigueur et de grâces armé,
Ses cheveux qui lui font un casque parfumé,
Et dont le souvenir pour l'amour me ravive.
XXXII. Une nuit que j'étais près d'une affreuse Juive..., 1-2연.

한 명의 몸 파는 유대 여자(v.1-3) 옆에 누워, 또 다른 아름다운 이(v.4)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이다. 이때 생각 속의 그 아름다운 여인은 욕망의 대상이었으나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화자에게 슬픈 정조를 일으키고(v.4), 우아한 동시에 힘 있는 시선을 가졌으며(v.6), 그렇게 그녀를 감싸고 있는 위엄은 타고난 것이어서(v.5), 시공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만으로 시적 화자에게 사랑을 되살아나게 하지만(v.8), 그녀와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아, 마치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녀를 호위하는 하나의 투구, 그렇지만 아름다운 그녀이므로, 향기나는 투구로 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v.7). 즉, 말라르메의 시에서와 같이 머리카락-투구는 하나의 방패로서, 근접할 수 없는 여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방패 역할을 머리카락에 부여한, 말라르메와 보들레르의 시 속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왜 이들 여인에게는 방패 머리카락이 필요했을까. 에로디아드의 고백을 따라 가보자 : “내[에로디아드]가 원하는 것은 [...] 영원히 순결한 황금의 [...] 내 머리카락이 [...] 금속의 불모의 냉기를 간직하는 것이다”(Je[Hérodiade] veux que mes cheveux /[...] de l’or, à jamais vierge /[...] Observent la froideur stérile du métal, 〈장면〉 v.35-39).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금빛 격류”(v.4)가 “황금의 머리카락”으로 변모하면서, 방패 머리카락의 방어력이 증대된다. 그런데 이때 머리카락에 금속성이 부여되면서 강화되는 것에는 “불모의 냉기”도 있다. 즉, 외부로 차단하는 힘이 강해지면서 증강되는 “불모의 냉기”, 에로디아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온기가 없는, 자신의 타인으로부터의 완전한 고립인 것이다. 에로디아드는 “[난]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Je ne veux rien d’humain, 〈장면〉 v.82).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 “인간적인 고뇌”에 무관심한 채, 금속성과 불모의 냉기와 위엄을 뽐어내는 여인의 이미지가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서도 발견된다.

물결치는 진줏빛 옷을 입고,
걸을 때도 그녀는 춤을 추는 듯,
신성한 요술쟁이의 막대기 끝에서
박자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기다란 뱀처럼.

인간의 고뇌에는 아랑곳 않는
사막의 우중충한 모래와 창공처럼,
바다 물결이 파도치며 얹히듯,
그녀는 무심코 몸을 펼친다.

반들반들한 두 눈은 매혹적인 광석,
그리고 야릇한 상징적인 그 천성 속에

순결한 천사를 고대 스팅크스에 섞어놓은 듯,

모든 것이 금과 강철, 빛과 금광석뿐,
불모의 여인의 차가운 위엄이
쓸모없는 별처럼 영원히 빛을 발한다.

Avec ses vêtements ondoyants et nacrés,
Même quand elle marche on croirait qu'elle danse,
Comme ces longs serpents que les jongleurs sacrés
Au bout de leurs bâtons agitent en cadence.

Comme le sable morne et l'azur des déserts,
Insensibles tous deux à l'humaine souffrance,
Comme les longs réseaux de la houle des mers,
Elle se développe avec indifférence.

Ses yeux polis sont faits de minéraux charmants,
Et dans cette nature étrange et symbolique
Où l'ange inviolé se mêle au sphinx antique,

Où tout n'est qu'or, acier, lumière et diamants,
Resplendit à jamais, comme un astre inutile,
La froide majesté de la femme stérile.

XXVII. Avec ses vêtements ondoyants et nacrés... 전문

시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여인의 몸짓은 무심함 속에서 굽이쳐 흘러나는 곡선에 가까워 마치 춤과 같고(1-2연), “인간의 고뇌”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듯한 무심함은 육중한 금속성으로, 그것은 다시 “차가운 위엄”으로, “불모의” 순결로 연결된다. 범접할 수 없는 여인의 존재감이 앞의 인용 시 「끔찍한 유대 계집 곁에 있었던 어느 날 밤」에서는 “머리카락 투구”에 의해 확보되었다면, 이 시에 서는 두 눈을 포함한 그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금속성 질료, 그

단단함과 광택에 의해 확보된다. 이렇게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그녀는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처럼 “인간”의 “고뇌”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불모의 여인”(v.13)인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주변의 근접을 불허하는 “불모의 여인”, 그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이 금속성 이미지를 『악의 꽃』에서 더 살펴보자.

달콤함도 쓰라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대의 두 눈은
 금과 쇠가 섞인
 차가운 두 알의 보석.
 Tes yeux, où rien ne se révèle
 De doux ni d'amer,
 sont deux bijoux froids où se mêle
 L'or avec le fer.
 XXVIII. Le serpent qui danse, 4연.

시적 화자 바로 눈앞에 있는 “너[여인]의 그토록 아름다운 육체에서”(De ton corps si beau, v.2), 특히 “풍성한 머리카락”(chevelure profonde, v.5)에서 연상된 “바다물결”(flots, v.8)과 “배”(navire, v.9)를 통해 “먼 하늘을 향한”(Pour un ciel lointain, v.12) 항해가 시적 화자의 영혼 속에서 꿈꾸어지는(v.11) 시 「춤추는 뱀」이다. 그렇게 시는 먼 곳으로의 항해라는 시적 화자의 꿈을 명시한(V.11-12) 후, 그러한 꿈을 가능한 세계로 만드는 시적 화자 앞 여인에 대한 ‘감각들’과 그러한 “[정신과] 감각들/관능의 전이”(les transports

17) 『악의 꽃』의 또 한 명의 편집자 잭슨이 이 시에서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의 직접적 기원 읽기 시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Charles Baudelaire, *Les Fleurs du Mal*, Édition établie par John E. Jackson, Préface d'Yves Bonnefoy, Le Livre de Poche, Classique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9, p. 279), 본고의 독서는 잭슨의 지적과는 무관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de l'esprit et] des sens, IV.Correspondances, v.14)를 꿈의 이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적 화자의 꿈이 명시된 이후 처음 등장하는 것이 “너[여인]의 두 눈”(V.13)이고, 그 눈은 차갑다(v.15). 그리고 그 냉기는 금속성에 의해 강화된다. 그녀의 두 눈은 차가우면서 동시에 “금과 쇠가 섞여 있는”(v.16) 것이다. 그렇게 금속성에 의해 더더욱 견고해진 형상의 여인은 그 차가움이 빙하에까지 이르게 된다. 즉, 시적 화자의 눈앞 여인에서 연상되어 있는 감각 대상이 “빙하”(des glaciers, v.30)인 것이다. 그러니까, 화자 곁 여인이 침 흘리는 것에서 “와르르 녹아내린 빙하로 / 불어난 물결”(un flot grossi par la fonte / Des glaciers grondants, v.29-30)이 환기되는 것은, 여인에게 부여된 냉담함이 뿜어내는 냉기의 절정인 것이다(그리고 이 “빙하”, 이 냉기는 ‘에로디아드’의 주요 이미지이기도 하다)¹⁸⁾. 그러한 절정의 그녀가 “빙하”로 그려지는 일은 -화자의 “정신” 속에서 펼쳐질- 화자 앞 여인에 대한 일차적 “감각들/관능의 전이”에 의한 것이고, 그때 그 “전이”는 일차적·현실적인 것이 아니므로 “꿈꾸어지는” 것으로 명명되어,¹⁹⁾ 급기야 화자의 마음에 별들이 쏟아내리는 것처럼, 그러

18) Cf. “나는 바란다 / 내 머리칼이 내게 안겨주는 공포 속에 살기를, / 밤이면, 내 잠자리로 물러나, 아무도 범하지 않는 / 파충류, 쓸모없는 내 육체 속에서, 네 창백한 빛의 그 차가운 반짝거림을 느끼기 위해, / 스러지는 너, 순결함으로 타오르는 너, / 얼음과 잔인한 눈의 하얀 밤이어!” (J'aime l'horreur d'être vierge et je veux / Vivre parmi l'effroi que me font mes cheveux / pour, le soir, retirée en ma couche, reptile / inviolé, sentir en la chair inutile / Le froid scintillement de ta pâle clarté, / Toi qui te meurs, toi qui brûles de chasteté, / Nuit blanche de glaçons et de neige cruelle !“(〈장면〉 v.103-109, 『에로디아드』).

19) 여기서 이 시 『춤추는 뱀』에서 “꿈꾸어지는” “향해”의 지향점이 “어느 먼 곳”인 이유가 밝혀진다. “전이”의 결과물로서 가능한 꿈의 풍경은 눈 앞 상황 그 자체가 아니므로 “먼 곳”이라는 공간적 좌표를 부여받을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부여된 공간적 간극에는 “전이”에 따른 시간적 간극 또한 동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 『춤추는 뱀』은 『악의 꽃』

한 별들이 떠있는 하늘을 마시는 일처럼 황홀한 일이 되고(“나는
썩썩하고 기분 북돋우는 / 보헤미아의 술을 마시는 듯, / 내 마음
에 별들을 뿌려주는 / 흐르는 하늘을 마시는 듯!” Je crois boire
un vin de Bohême, / Amer et vainqueur, / Un ciel liquide qui
parsème / D'étoiles mon coeur ! v.33-36), 그렇게 “전이”의 절정
으로서의 그 황홀함 속에서 시적 화자의 욕망은 최고조에 달한다.

오 위험한 여인이여, 오 매혹적인 기후여!
나는 또한 당신의 눈(雪)과 서리마저 사랑하여,
얼음보다 칼보다 더 날카로운 쾌락을
혹독한 겨울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
Ô femme dangereuse, ô séduisants climats !
Adorerai-je aussi ta neige et vos frimas,
Et saurai-je tirer de l'implacable hiver
Des plaisirs plus aigus que la glace et le fer ?
L.Ciel brouillé, 4연.

“다정”함(v.3)을 동반한 “매정”함(v.3)을 갖추고서, 시적 화자로
하여금 “안개 낀” “젖은 풍경”(v.11)과 “기후”(v.13)를 떠올리게 하
는 여인, 다시 말해 시적 화자 주위를 온통 위와 같은 모습으로

의 시학을 종합한다고도 할 수 있는 시 「상응」이 보여주는 “합일”(unité,
v.6)의 풍경, 혹은 그 합일에 이르는 시적·정신적 방법으로서의 “정신과
감각들/관능의 전이”에 대한 “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 중 하나로서,
우리는 이 시 속에서 일차적인 감각들의 세계와 그것의 전이로 인해 형
상화된 -분명 그 일차적 감각 대상은 아닌, 그렇지만 그 일차적인 지상
의 감각 대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지상의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
는- 어떤 합일의 극치를 함께 -‘상상적’으로, 그러니까 시를 통해, ‘시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들레르의 시 속 여인 이미
지들은, “감각들/관능”과 짝을 이룰 수밖에 없음으로 해서, 이 지상의 일
차적 “감각들/관능”의 “전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좌표중
하나를 『악의 꽃』에서 부여받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본고가 『악의 꽃』
속 여인 이미지를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

물들이는, “매혹적인”(v.13)만큼 “위험한 여인”(v.13), 이제 더는 시적 화자가 그녀의 매력을 외면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여인이 등장한다. 그렇게 그녀이자 기후 자체인 “혹독한 겨울”(v.15)의 그 “눈과 서리”(v.14) “얼음과 칼”(v.16)에서, 그 “위험”(v.13)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쾌락”(v.16)을 끌어내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눈과 서리”를 동반한 “안개 낀” “겨울”날의 을씨년스러움은 곁을 내주지 않는 그녀와의 거리, 간극을 대변하는 것일 터이고, 그 냉담함을 뚫고서 다가가야 하는 그녀이므로 “위험”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그녀에게 가까워지려는 시도 자체는 “혹독한” 모험일 것이나, 그 끝에 있을 그야말로 차갑고도 “날카로운 쾌락”이 “다정”하게 시적 화자를 향해 손짓하는 것이다. 날 선 얼음 칼날로 에워싸인 겨울 여인이므로 그녀와의 쾌락이 마치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위험한 여인”, 그녀는 접근을 불허하는 금속성 이미지의 여인, 그 절정에 이른 이미지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구” “머리카락”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금속성 이미지의 단단함과 굳건함으로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여인은 이렇게 최고조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최고조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은 것일까. 여인은 자신을 그렇게 욕망하는 시적 화자를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2) 자기 죽음으로 화답하는 불모(不毛)의 완성 그리고 反-코기토

시 속 이미지 가운데 특히 여인 이미지를 주목할 때, 여인을 욕망하는 시적 화자와 그렇게 욕망의 대상이 된 여인의 관계가 문제시되는 지점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대목은, 시적 화자의 욕망의 대상인 여인은 시적 화자가 관계한 타자이자 세계라는 점이다. 즉 “여인인 타자와의 만남의 양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시 속 사랑의

담론”²⁰⁾을 통해 우리는 시적 화자가 마주한 여인이라는 세계를 읽는 것이다. 그때 욕망의 관계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은유이고, 결국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인 및 그에 대한 시적 표현은 시가 마주하는 세계 자체가 된다.²¹⁾ 달리 말하면, 시 속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인의 좌표는 그 시가 보여주는 세계이자, 그 세계 속 시의 좌표, 세계와의 관계하에 있는 시에 대한 정의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최고조에 이른 시적 화자의 욕망이 불모의 여인 즉, 시적 화자뿐 아니라 모든 외부로부터 자신의 고립을 지키는 여인을 향해있는 상태에서, 향후 두 존재 간의 관계 양상은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통해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反-코기토적 사유를 읽는 본고의 하나의 동기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불모의 여인과 그 여인에 대한 욕망의 관계 변화를 따라가 보자.

머리 없는 송장 하나, 새빨강게 살아 있는 피를
 흥건히 젖은 베개 위에
 강물처럼 쏟아내고, 목이 타는 초원처럼
 베갯잇은 피를 빨아먹는다.

어둠이 낳아 우리 눈을 붙들어매는
 파리한 환영처럼,
 그 머리는 한 다발의 검은 머리채가

20) Sophie Boyer, *La femme chez Heinrich Heine et Charles Baudelaire : le langage moderne de l'amour*, L'Harmattan, 2005, p. 3.

21) Cf. John E. Jackson, *Le Corps amoureux*, op. cit., p. 13 : “[여인 이미지와 관련된 시의 전개에 있어서] 모든 것은, 마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 육체가 현실에 대한 은유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선정적인 표상이 현실에 대한 재현의 형상인 것처럼 일어난다.” *ibid.*, p. 132 : “선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체의 현실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나타낸다.”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침대 옆 탁자 위에 미나리아재비처럼
쉬고 있다. 그리고 생각이 빈 채로
희미하고 흰 시선이 황혼처럼
뒤집힌 눈에서 새어나온다.

침대 위에는 거리낌없어 별거벗은 몸통이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
은밀한 광채와 숙명적인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드러내보인다;

중아리엔 금빛으로 가를 두른 장밋빛 긴 양말이
추억처럼 남아 있고;
양말 대님은 타오르는 은밀한 눈처럼
금강석 시선을 던진다.

Un cadavre sans tête épanche, comme un fleuve,
Sur l'oreiller désaltéré
Un sang rouge et vivant, dont la toile s'abreuve
Avec l'avidité d'un pré.

Semblable aux visions pâles qu'enfante l'ombre
Et qui nous enchaînent les yeux,
La tête, avec l'amas de sa crinière sombre
Et de ses bijoux précieux,

Sur la table de nuit, comme une renoncule,
Repose ; et, vide de pensers,
Un regard vague et blanc comme le crépuscule
S'échappe des yeux révoltés.

Sur le lit, le tronc nu sans scrupules étale
Dans le plus complet abandon

La secrète splendeur et la beauté fatale
 Dont la nature lui fit don ;
 Un bas rosâtre, orné de coins d’ou, à la jambe,
 Comme un souvenir est resté ;
 La jarretière, ainsi qu’un oeil secret qui flambe,
 Darde un regard diamanté.
 CX. Une martyre, 3-7연.

부제 “어느 이름 모를 대가의 소묘”(Dessin d’un maître inconnu)에 등장하는 여인을 “순교자”로 이름 붙인 시이다. 이 시 「순교의 여인」은 15연으로 되어있다. 7연까지는 “소묘”의 풍경이, 8연부터는 그 그림에서 유추된 “애욕”(9연)의 “향연”(10연)이 그려지고 있다. “소묘” 그림은 한 여인의 “커다란 초상화”(un grand portrait, 8연)이다. “호사스러운 가구”(1연)가 있는 “방”(3연) “침대”(6연) 위에는 “머리 없는 송장 하나”(3연)가, “침대 옆 탁자 위”(5연)에는 “그 머리”(4연)가 있는 그림이다. 머리가 잘려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머리 없는 송장”에서 “강물처럼 쏟아”지는 “피”가 “새빨갭게 살아있”으니 말이다(3연). 이렇게 역동적이기까지 한 몸통과는 달리 잘려나간 머리는 “황혼처럼” 편안하다(5연). “쉬고 있다”(5연). 게다가 “한 다발의 머리채가 /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4연), 그것이 부각되어 있어(이 머리장식은 어둠 속에 나타난 환영처럼 “우리 눈을 붙들어” 땀 만큼 강렬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몸통도 마찬가지이다. “벌거벗은 몸통”도 “숙명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6연). 이렇게 단두된 여인의 주검이 시 속에서 “순교의 여인”(시의 제목)으로 칭해지는 것일 터인데, 특이한 것은 주검의 시선이다. 머리의 “시선”(5연)에는 “생각이 비어있다”(5연). 잘려진 머리이므로, 즉 죽음을 맞이한 머리이므로, 생각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이러한 머리의 시선과는 달리 아주 총

명해 보이는 또 하나의 시선이 있다. 머리가 없는 몸통 쪽에 “비밀스러운 눈”이 있는 것이다(7연). “종아리”에 신겨져 있었을 “양말” “대님”에서 새어나오는 “시선”이다(7연). 그것도 “금강석 시선”(un regard diamanté, 7연)이다. 여기서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와 그 “결혼”을 떠올리게 된다. 「에로디아드의 결혼」, 그 “결혼” 또한 참수와 참수된 머리와 참수된 머리의 시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에로디아드의 결혼」의 에로디아드의 결혼은 “한 아이시절과 끔찍한 재능과의 차가운 결혼”(Hymen froid d’une enfance avec l’affreux génie, 〈종장〉 v.21)이다. 자기 자신의 신비를 위해 자기 내면에 침잠해, 전적인 고립 속에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던 에로디아드가 보모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의 마지막 대사에서 에로디아드는 미(美)의 나라 “거기로 떠나리라”(J’y partirais. v.126)고 말한다. 그런데 에로디아드의 추구 끝에 있는 아름다움은 어떠한 외부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어떠한 외부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즉, 그 미의 나라로 떠나겠다는 것은 그러한 외부와의 전적인 차단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 행 뒤,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입술의 / 별거벗은 꽃이여!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 [...] / 그대는 터뜨리는가 드높고 상처 입은 오열을, / 몽상에 잠겨 있다가 제 차가운 보석들이 / 마침내 흩어지는 것을 느끼는 한 아이시절처럼.”(Vous mentez, ô fleur nue / De mes lèvres! J’attends une chose inconnue / Ou peut-être, ignorant le mystère et vos cris, / Jetez-vous les sanglots suprêmes et meurtris / D’une enfance sentant parmi les rêveries / Se séparer enfin ses froides pierreries. 〈장면〉 v.129-134)이라고 말한다. 에로디아드의 절대적 고독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에로디아드의 기다림의 대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대상을 향한 “한 아이시절”의 열림, 그 아이의 고립을 지탱

해주었던 “차가운 보석들”의 “흠어짐”이 예감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에로디아드는 “한 아이시절”의 그녀이고, 그러한 과거를 뒤로 하고 “차가운 결혼”을 이행함으로써, 그녀의 “아이시절”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혼”의 대상은 “끔찍한 재능”이다. 그러니까 「에로디아드의 결혼」을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유골이 있던 /양푼”(bassin / [...] où reposât un [...] reste, 〈중장〉 v.36-37) 혹은 “금빛 쟁반에 있는 잘린 목”(le chef tranché dans un plat d'or, 〈중장〉 v.13), 그러니까 ‘성 요한의 잘린 머리’ (〈서장 II〉 v.9-12 참조) 혹은 그렇게 참수되어 떨어져 버린 그 잘린 머리의 시선이다(〈서장 II〉 v.20 참조). 에로디아드의 “결혼”의 대상은 참수된 머리 혹은 그 시선인 것이다. 그리고 성 요한의 참수가 에로디아드 자신의 개별적 -정신적- 죽음을 의미하므로,²²⁾ 그러한 개별적 사유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재능”은, 그것이 정신적이더라도 죽음을 동반해야 하므로 “끔찍한 재능”인 것이다. “에로디아드의 결혼”은 에로디아드와 성 요한의 참수된 머리와 결혼, 그 잘린 머리의 에로디아드와의 대면, 그 잘린 머리의 시선 앞의 에로디아드의 현존, 다시 말해 에로디아드의 자기 죽음과의 결혼, 자기 자신의 개별적 사유의 사라짐에 대한 에로디아드의 목도(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아이시절”이다), 즉 말라르메 일생의 시적·정신적 추구 대상이었던 “순수개념에 이른 감성에 대한 인식”²³⁾ 바로 그것이다. 그때, 그 결혼이

22) 「에로디아드의 결혼」의 등장인물은 에로디아드, 보모, 성 요한의 참수된 머리이고, 그 결혼의 당사자는 에로디아드와 성 요한의 참수된 머리이다. 시는 이 세 등장인물이 한 존재의 단계별 인식 변화에 따른 양태임을 공을 들여 구조해나감으로써, 에로디아드의 결혼이 에로디아드와 자기 자신의 정신적 죽음과의 결혼,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개별적 사유의 사라짐에 대한 인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줄고,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Hérodiade) 연구 -일원적 존재-언어를 중심으로-」, 앞 논문, pp. 165-226 참조).

23) 같은 논문 p. 260.

완수되면, 에로디아드는 자신의 “아이시절”을 지나 “승리의 여왕”(reine triomphasse, 〈종장〉 v.46)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특별한 “시선”이 보들레르의 「순교의 여인」에 등장한 것이다. 다시 돌아가보자.

보들레르의 「순교의 여인」, 그 시 속 한 여인의 잘린 머리와 몸통이 그려진 초상화에서 시적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두 시선은 상술한 대로 잘린 머리쪽의 “생각이 비어있는” “시선”과 몸통 쪽 양팔 대님의 “비밀스러운 눈”에서 새어나오는 “금강석 시선”이다. 여기서 이 시선들의 의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초상화에서 어떠한 욕망과 축제를 유추하는 8연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 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끔찍한 애욕”(baisers infernaux, 9연)의 “괴상한 향연”(fêtes étranges, 9연)이다. 그리고 그 향연을 즐겼을 이들은 “악마들”(mauvais anges, 9연)이다. 유추되는 “향연”은 “더러운 송장”(cadavre impur, 13연)과 “변질된 무리들”(meute altérée, 11연)의 성적인 결합이다. 바로 이 “향연”에 부여된 시적 풍경에서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데카르트 코기토적 이원론을 극복하는 反-코기토적 사유를 읽은 바 있다. “괴상한 향연”의 주체가 “악마들”(10연)이고, 바로 다음 시 「천벌받은 여인들」(Femmes damnées)에서 “악마들”은 “무한을 찾는 여인들”(chercheuses d’infini, 6연)로 등장하므로, 시 제목이 가리키는 ‘순교’, 즉 죽음은 무한 추구의 과정으로 변환되어, “순교하는 여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목숨 바쳐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 자기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 시는 그러한 ‘순교’의 “향연”을 남녀의 성적인 결합으로 그리고 있어, ‘나’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을 향해있는 그 행위의 향연 이후 남녀의 차이는 무화되는 것이다.²⁴⁾ 즉, 두 동강 난 머리

24) 참고, 「反-코기토」로 읽는 보들레르 : 『악의 꽃』의 ‘악’의 ‘꽃’으로서 자

와 몸통 소묘를 통해, -정신적- 죽음에 따른 ‘나’의 경계 확장, 그로 인한 무한 추구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순교의 “괴상한” 향연이 유추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유추 속에서, “쉬고 있다”(5연)고 하는 잘린 머리에 대한 묘사가 이해된다. 제 할 일을 끝낸 것이다. 머리 속, 관념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개별적 자아의 정신적 죽음이 완수된 것이다. 그러므로 “황혼”(5연)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초상화” 자체에 대한 묘사에 등장한 머리 및 몸통의 시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순교의 여인』에 등장한 여인의 순교가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신적 죽음을 일컬을 때, 그렇게 잘린 머리의 시선에는 “생각이 비어있고”(vide de pensers, v.18), 그렇게 개별적이고도 분별적인 사유를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그 시선은 중성적인 “하얀 시선”(Un regard [...] blanc, v.19)이 되는 것이다. 그때, 그러한 머리에서 떨어져나간 몸통은 여인의 ‘나’를 벗어나있는 어떤 또 다른 나 혹은 확장된 나이므로, 개별적 자아의 죽음을 맞이한 -잘린- 머리를 하나의 타자로서 거리를 둔 채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잘린 몸통 쪽 “양말” “대님”의 시선이, 마침내 “금강석 시선”(un regard diamanté, v.28)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개별적 사유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다시 말해 금속성 이미지로 단단하게 갑옷을 두른 자신의 불모성 그 절정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 하나의 ‘보편’이 되는, 더 없이 견고하고 단단한 승리의 시선이 되는 것이다. 그때 그 시선이 있는 “눈”의 위치가 “양말” “대님”인 것은 잘린 머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몸통의 한 지점이어서일 것이다. 잘린 머리와 몸통이 이제 둘이 되어버린 극적 효과를 위해 머리에서 가장 먼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종아리

아의 확장 혹은 개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61집, 2016, pp. 455-457 참조.

부분이 채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금강석의 명료한 시선을 가진 에로디아드”(Hérodiade au clair regard de diamant, <장면> v.116)처럼 말이다. 이때, 다시 주목해야 할 시어가 “diamant”이다. “diamant”은 “di-amant”, 즉 ‘둘로 나뉜 연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²⁵⁾ 다시 말해, “diamant”·“di-amant”은 머리와 몸통의 분리를 통해 자아의 정신적·개별적 죽음을 형상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diamant”·“di-amant”은 그 자체로 에로디아드의 자기 자신의 -정신적- 죽음과의, 다시 말해 성 요한의 참수된 머리와 “결혼”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한 “diamant”이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에서는 명사로, 보들레르의 『순교의 여인』에서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보들레르의 시 세계에 있어서 해당 어휘가 말라르메의 세계와 완전히 동일한 문맥을 갖지 않더라도, “diamant [é]”은 그 자체로 불모의 여인에 부여되었던 금속성 이미지를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투구-머리카락”으로 외부의 범접을 불허하던 “위엄있는 여인”은 개별적 자아의 정신적 죽음에 이름으로써 자기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면서, 급기야 그 위엄을 시선에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경계를 넘어서 “승리에 찬 여왕”(Reine victorieuse, LVII.À une Madone, v.27)²⁶⁾

25) Cf. Eric Benoit, *Mallarmé et le Mystère du "Livre"*, Honoré Champion, 1998, p. 271 : “di-amant : un amant double(coupe en deux).”

26) 『악의 꽃』의 『어느 마돈나에게』(À une Madone)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속죄를 위해 자기 “슬픔 깊은 곳에” “제단”을 만들고 세운 “상”이다. 그렇게 “나[시적 화자]의 모든 상념들”이 “언제나 그대[그 상]를 바라보고 있음으로써(1연), 다시 말해 시적 화자는 자신의 속죄에 모든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대[우상]”는 “역할을 완수하고”(2연) 시적 화자 “사형집행관”(2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때 시적 화자가 그 우상의 “심장에 꽂은”(2연) “칼”은 “일곱 가지 중죄”로 만든 칼이다(2연). 시적 화자는 “자기 자신의 사형집행관”, “자기 자신의 중죄에 대한 사형집행관”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속죄를 마친 시적 화자의 상태가 “정신이 증기되어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앞서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시적 화자의 “질투”, “의심”, “눈물”, “나[시

에게 남아있는 일은 “금강석처럼” 빛나는 “하얀” 중성의 시선으로 세계를 수용하는 것이다. “보들레르가 프랑스의 심지어 유럽의 시에 도입하게 되는 근본적 새로움이 사실상 실재에 대한 지각의 진원으로서의 죽음의 내면화, 그 죽음의 동화”²⁷⁾에 있을 때, 인간 조건의 근본을 이루는 죽음은 어떤 보편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개별적 자아의 정신적 죽음으로 “전이”되어, 이제 그 정신적 죽음에 따른 중성적 시선을 통해 세계를 그 자체로 하나의 실재로서 수용하게 되는 反-코기토적 세계 인식의 진원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악의 꽃』에 등장하는 여인의 불모성은 말라르메의 “에로 디아드”처럼 이렇게 『악의 꽃』이 “악”의 “꽃”으로서 피워낸 자아의 확장 및 무화라는 反-코기토적 세계 인식의 절정에 닿게 된다.

3. 나가는 말 : 反-코기토의 태동으로서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하나의 전통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 전통에 반하는 혁명들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고,”²⁸⁾ 그것이 서로 대비되는 문학 사조의 비교를 통해 한 사조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적 화자의 욕망” “증오” 등으로 나와 있다. 즉, 이 “마돈나”라는 우상을 세우고 파괴하는 과정은 시적 화자 내면의 불순물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남은 것은 그러한 죄의 무게를 덜어낸, “증기” 같은 “정신”인 것이다. “승리에 찬 여왕”이란, “속죄로 넘치는 승리에 찬 여왕”(Reine victorieuse et féconde en rachats)으로,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정신을 정화시킨 시적 화자 자신이다.

27) John E. Jackson, *La mort Baudelaire, Essais sur Les Fleurs du Mal*, Editions de la Baconnière à Neuchâtel, 1982, p. 14.

28) Christian Descamps, *Interrogations philosophiques contemporaines en France*, Imprimerie Néo-Typo, p. 7.

때, 그것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反-코기토적 성격을 이전 시대의 낭만주의와 비교하여 드러낸 선행연구²⁹⁾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에 이어, 본고는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통해, 反-코기토적 사유에 있어서 선구의 자리에 있는 두 시인의 시 세계를 드러내고, 아울러 두 시인의 시 세계 속 이미지의 유사성에도 접근해보았다. 말라르메의 시 세계에서 에로디아드가 가지는 비중을 생각할 때,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서 에로디아드와 비교하에서 그 새로운, 즉 反-코기토적인 가치, 다시 말해 시적 화자의 자아의 경계 확장이라는, 삶과 유리되지 않은 -어떤 실천적일 수 있을- 가치를 드러내는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 읽기는 ‘삶 속의 읽기/쓰기’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계몽철학자들의 비판 이후 “지금까지는 종교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었던 몇몇 인간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이 이제는 예술의 소임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18세기말부터 “저 미지의 힘들을 되찾아내어가지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이원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의식으로부터 차츰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어, 이제 “형이상학적 인식을 위한 어떤 비상수단”이 된 “시”가 “다른 세계-그 세계가 사실은 우리들의 세계이지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아가 그 한계를 벗어나 무한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한다고 할 때,³⁰⁾ 결과적으로 본고는 위와 같은 새로운 시적 소명의 실현가능성 및 그 장엄한 시도를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통해 드러낸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시를 통

29) 졸고, 「코기토에서 反-코기토로 : ‘反-코기토’로 읽는 ‘관계’의 새 지평 -프랑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앞 논문.

30) 마르셀 레몽, 김화영 역, 『프랑스현대시사 -보들레르에서 초현실주의까지-』, 문학과학지성사, 2007, pp. 9-32. Marcel Raymond,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Librairie José Corti, 1963, pp. 10-28.

해 독자는 자아의 경계 확장이라는 反-코기토적 가치를 현실 삶 속 실천적 가치로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사랑하고 생산하는 것이 [...] 잠재성들을 현동화하는 것”일 때, 파시즘 또한 대중의 욕망일 수 있음으로 해서 남겨지게 되는 윤리의 문제에 직면한다면,³¹⁾ 즉 “모든 가능성이 현실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인 “윤리”³²⁾가 우리 삶 속에서는 요청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마주한다면, 불모의 여인 이미지로 구축되는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세계는 그 세계를 향유하는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은, “사물, 삶, 시간을 보게 만드는 힘”³³⁾일 수 있는 예술작품 및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에서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무화하는 시적 이미지가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주조될 때, 본고의 여인 이미지 분석은 불모의 여인을 통한 시적 인식이 세계를 대면한 근대적 개인의 -자기 자아의 경계를 확장 혹은 무화해가는- 세계 인식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에 이르렀다.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에서 구현되는 불모의 여인 이미지는 분명 “자신의 ‘고갈되지 않는 나’의 반영 속에서 자기 존재의 환원불가능한 이타성을 발견하는” “포스트-니체 및 포스트-프로이트 코기토의 문제적 주체로서의 나르시스”³⁴⁾로서 자리하는 것이다.³⁵⁾ 즉 “죽음과 관련하여, 보들레르가 시 전통에 가

31) Christian Descamps, *Interrogations philosophiques contemporaines* en France, op. cit., p. 26 참조.

32) Ibid., p. 26.

33) Ibid., p. 28.

34) Bertrand Marchal, *Lire le Symbolisme*, DUNOD, 1993, p.111.

35) 물론 여기에서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등장하는 불모의 여인과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 사이에는 차이가 없지 않다. 에로디아드가 그야 말로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며 자성적 시선에 의해 자아의 경계를

저온 새로움이 그의 시 속에서 죽음이, 죽음을 부르고 죽음에 말을 걸고, 죽음에 의해 불려지는 ‘나’와의 명확한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데 있다”³⁶⁾고 할 때, 그렇게 자기 실존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죽음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직면할 줄 알았던 보들레르는 -수많은 탈근대적 담론 한 가운데에 그 이름이 초대되는 말라르메와 함께- 그러한 죽음의 정신적 차원으로의 이동을 통해, 실존의 한계 상황에 놓여있는 자기 존재의 경계를 확장할 줄도 알게 된, 세계 속 자기 자신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생성해가고 구성해나가는 것임을 인지한 反-데카르트 코기토적인 사유의 궤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 단계에 이르고,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 혹은 「에로디아드의 결혼」이라면, 보들레르의 『악의 꽃』에 등장하는 불모의 여인[들]과 그 세계 인식의 과정은 “자신의 욕망을 애두르지 않고 말하는 ‘나’(je)를 프랑스 서정시의 장에 도입한 보들레르”(John E. Jackson, *Le Corps amoureux*, op. cit., p. 89) 덕분에, 시적 화자와 그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불모의 여인, 그 둘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 36) John E. Jackson, *La mort Baudelaire*, op. cit., p. 22.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시 세계가 보여주는 反-코기토적 사유가 타자를 향한 자아의 열림, 타자와의 관계로 정립되는 새로운 자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시인의 [화술적] 사라짐”(disparition [élocutoire] du poète, Stéphane Mallarmé, *Oeuvres Complètes*, op. cit., p.366)에 따른 이른바 ‘저자의 부재’, “비인칭”(impersonnel, Stéphane Mallarmé, *Correspondance*, op. cit., p.586) 등과 연결될 때, 이것은 본고의 각주 34, 35, 36으로 제시된 표현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각주 34, 35, 35가 가리키는 보들레르의 특징은 서구 ‘개인’의 등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고, 보들레르의 특별한 위치는 세계 속 혹은 세계 앞 그 ‘개인’의 감수성이 이전 시대의 일반적 스펙트럼을 벗어나, 각주 34, 35, 36이 밝히고 있는 지점에까지 이른 데 있으며, 그렇게 보들레르에서 확장된 세계 앞 개인의 감수성의 자장이 바로 프랑스 상징주의를 프랑스 낭만주의와 구별짓게 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을 밝힌 글이 필자의 선행논문(『코기토에서 反-코기토로 : ‘反-코기토’로 읽는 ‘관계’의 새 지평 -프랑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앞 논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세계를 표상하는 중심으로서의 자아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말하자면 “비인칭의” 자아 또한 자아의 한 양태, 자기 앞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서 수용한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의 존재-인식 양태인 것이다.

적을 보여준 것이다. 그때, “타자 쪽으로 간다함은 또한 자신을 부정하는 것”³⁷⁾이므로, 결국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시가 “무한한 헤어짐의 고백 속에서 타자를 향해가는 자기의 찢김”³⁸⁾으로서 정의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욱 잘 살아남기 위해서 [만], 더욱 잘 존재하기 위해서, 문학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³⁹⁾ 것으로, 보들레르의 시 속 화자의 타자를 향한 자아의 분열은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와 함께 이 지상의 새로운 존재 가능성, 즉 나와 너의 ‘관계’ 속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을 향한다: “살아남음의 코기토”(cogito de la survie).⁴⁰⁾ 이렇게,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의 反-코기토적 사유를 자아의 개방성과 관련된 불모(不毛)의 여인 이미지를 통해 읽은 본고는 결국 “자신으로부터 달라지고 자신을 연기시키며” “자신을 차이와 차연으로 쓰”⁴¹⁾는 탈근대적 글쓰기의 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듯, 反-코기토적 사유의 선구적 위치에 니체, 프로이트, 맑스와 함께 프랑스 상징주의가 서 있음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참고문헌

김창수, 「보들레르와 女子 (1)-연구의 현황」,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

37) Jacques Derrida,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op. cit., 1967, p. 113. 자크 데리다, 『글쓰기와 차이』, 앞의 책. p. 124.

38) Ibid., p. 113. 같은 책, p. 124.

39) Ibid., p. 115. 같은 책, p. 127.

40) Jacques Derrida, *Apprendre à vivre enfin*, Éditions Galilée, 2005, p. 11. 데리다에게도,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남은 숙제는, 그리고 애초의 의무이자 선물은 이것이어야 할지 모른다: “[마침내] 살[아있]기를 배우기”(apprendre à vivre [enfin]).

41) Jacques Derrida,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op. cit., p. 115. 자크 데리다, 『글쓰기와 차이』, 앞의 책. p. 127.

- 화연구』 제22집, 2011, pp. 157-203.
- 데리다, 자크, 남수인 옮김, 『글쓰기와 차이』, 동문선, 2007.
- 레몽, 마르셀, 김화영 역, 『프랑스현대시사-보들레르에서 초현실주의까지-』, 문학과지성사, 2007.
- 말라르메, 스테판, 황현산 옮김, 『시집』, 문학과지성사, 2005.
- 보들레르, 샤를르, 윤영애 옮김, 『악의 꽃』, 문학과지성사, 2003.
- 바타이유, 조르주, 최윤정 옮김, 『문학과 악』, 민음사, 1995.
- 사르트르, 박익재 역, 『시인의 운명과 선택-보들레르 : 인간과 시-』, 문학과지성사, 1985.
- 장정아, 「말라르메의 에로디아드(Hérodiade) 연구-일원적 존재-언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장정아, 「『反-코기토』로 읽는 보들레르 : 『악의 꽃』의 ‘악’의 ‘꽃’으로서 자아의 확장 혹은 개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제61집, 2016, pp. 454-457.
- 장정아 · 이송이, 「코기토에서 反-코기토로 : 『反-코기토』로 읽는 ‘관계’의 새 지평-프랑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프랑스문화연구』 제59집, 2023, pp. 197-225.
- 조은라, 「댄디즘의 정신적 귀족주의에 나타난 여성혐오 연구」, 유럽문화예술학회, 『유럽문화예술학논집』 제10권 제1호, 2019, pp. 117-133.
- 조현진, 「보들레르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어머니」,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58집 제1권, 2019, pp. 291-320.
- 조현진, 「보들레르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흑인 여성상」,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4집, 2016, pp. 105-139.
- 최윤경, 「말라르메에 나타난 여성성의 근대적 의의-『에로디아드 Herodiade』를 중심으로-」, 한국불어불문학회, 『불어불문학회연구』 제54집, 2003, pp. 663-687.
- Bataille, Georges, *La littérature et le mal*, Folio/Essais, Gallimard, 1957.
- Baudelaire, Charles, *Les Fleurs du Mal*, Préface d'Yves Bonnefoy, Livre de Poche/Classique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9.
- Baudelaire, Charles, *Oeuvres Complètes*, Éditions du Seuil, 1968.
- Benoit, Eric, *Mallarmé et le Mystère du “Livre”*, Honoré Champion, 1998.
- Boyer, Sophie, *La femme chez Heinrich Heine et Charles Baudelaire : le langage moderne de l'amour*, L'Harmattan, 2005.
- Descamps, Christian, *Interrogations philosophiques contemporaines en France*, Imprimerie Néo-Typo.

- Derrida, Jacques. *Apprendre à vivre enfin*, Éditions Galilée, 2005.
- Derrida, Jacques.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Seuil, 1967.
- Friedrich, Hugo. *Structure de la poésie moderne*, Livre de Poche,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1999.
- Jackson, John E., *La mort Baudelaire, Essais sur Les Fleurs du Mal*, Editions de la Baconnière à Neuchâtel, 1982.
- Jackson, John E., *Le Corps amoureux, Essai sur la représentation poétique de l'éros de Chénier à Mallarmé*, À la Baconnière, 1986.
- Mallarmé, Stéphane, *Correspondance*, Gallimard, 1995.
- Mallarmé, Stéphane, *OEuvres complèt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45.
- Mallarmé, Stéphane, *OEuvres complètes 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98.
- Mallarmé, Stéphane, *Poésies*, Gallimard, 1992.
- Mallarmé, Stéphane, *Les Noces d'Hérodiade*, publié par Gardner Davies, Gallimard, 1959.
- Marchal, Bertrand, *Lire le Symbolisme*, DUNOD, 1993.
- Raymond, Marcel, *De Baudelaire au Surréalisme*, Librairie José Corti, 1963.
- Sartre, Jean Paul, *Baudelaire*, collection idées, nrf, Gallimard, 1947.
- Seok, Choe, *Rêve féminin ou le féminin chez mallarmé*, Université Paul Valéry – Montpellier III, 1986.

(투고일: 2024. 8. 20, 심사완료일: 2024. 9. 10, 게재확정일: 2024. 9. 13)

장정아
소 속: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 소: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자우편: jangjunga@pusan.ac.kr

[Abstract]

Poems of Baudelaire and Mallarmé as the Birthplace of
Contre-cogito

– Focusing on the Image of a Sterile Woman –

Jang, Jung-A

This paper seeks to reveal the contre-Cartesian cogito world in the poetry of Baudelaire and Mallarmé, focusing on the image of a sterile woman in their poetry. The sterile woman pursues the completion of herself through her own spiritual death in absolute isolation, and as a result, reveals her journey of expanding and abolishing the boundaries of her ego, that is a process that moves beyond the dualism of the western cartesian cogito into the thinking of the relationship. This paper reveals this by reading the sterile woman in Baudelaire's *Les Fleurs du Mal* through the character 'Hérodias' in Mallarmé's poem. This shows that French symbolism is another pioneering position in postmodern thinking along with Nietzsche, Freud, and Marx, through poetry.

Key words : Baudelaire, sterile woman, Mallarmé, Hérodias, contre-cogito.